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한영교
편집장·김나연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지속되는 중·일 갈등, 한국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기획 >> 4면

Co:Re, 2026 학생회의 방향을 묻다

현장르포 >> 5면

2025년 결산, 캠퍼스 '안' 과 세상 '밖' 을 꿰뚫은 두 개의 시선

제596호

2026년 1월 16일(금)

치열했던 '경선' 으로 당선된 제54대 'Co:Re' 총학생회 출범



▲ 출처: 총학생회 블로그

지난 11월 17일(월) 09시부터 3차 연장일인 11월 23일(일) 18시까지

지 8년 만에 경선으로 진행된 2026 우리대학 학생회 선거가 마무리됐다. 유권자는 총학생회, 단과대·학과별 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교내외에서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본 기간 내에 개표가 성사된 건 인문과학대학(53.03%), 미래융합대학(59.41%), 미래융합대학2(53.38%), 총동아리연합회(57.09%)뿐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35조에 따라 3회에 걸친 연장투표를 했다. 2차 연장투표 17시 30분 기준, 사회과학대학(55.46%) 개표가 성사됐지만, 다른 단위는 성사되지 못했다. 3차 연장투표까지 가야 총

학생회 (52.04%), 이공대학 (51.09%) 개표가 성사됐다. 세척상 마지막 연장투표였다. 통합예술대학(47.42%)는 결국 개표 기준을 넘지 못했다. 이후 11월 24일(월) 19시에 청운관 701호 중선관위실에서 성사된 선거구만 개표가 진행됐다. 최종 결과, 최종 득표를 기호 1번 58.98% (1,508명), 기호 2번 35.28% (902명), 기호 3번 5.74% (147명)로 기호 1번 Co:Re가 당선됐다. 이에 중선관위는 11월 25일(화)에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 지었다. 성사되지 않은 예술대학은 투표를 및 재선거 규정 부재로 인한 의결을 진행해 재선거했다. 12월 2일(화)에 마침내 요건을 충족시켜 개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최종 득표를 51.06%로 찬성 45,563명(811명), 반대 4,437명(79명), 기권 1,069명(19명)로 제28대 통합예술대학 이음이가 당선됐다. 한편, 전자컴퓨터공학과 학생회 선거는 12월 13일(토)까지 후보자 등록을 진행했으며, 12월 14일(일)부터 12월 24일(수) 18시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개표 결과, 찬성 50.46%(249명)로 1월 1일 당선을 확정 지었다.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펼쳐 그대의 힘이 되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제54대 총학생회 Co:Re는 새 시대를 알렸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서경대 신문사 보도사진전 성황리에 마무리



'제14회 서경대 신문사 보도사진전'이 2025년 12월 2일 10시부터 12월 4일 18시까지 총 3일간 청운관 L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대해 김호성(미용1 25) 기자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렸다는 점과 그 처음을 장식하게 돼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번 보도사진전은 195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서경대 신문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대학의 사진과 서경대신문의 종이신문, 각종 과거 자료 등을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농활 △대동제 △테마 △동아리 알림 △신문사 △체전 △학교 건물 △학교 일상 △학생회 △해오름제 △해외 취재 △행사 사진으로 구성됐다. 이처럼 방대한 양의 사진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 이요한(미용2 25) 기자는 "사진이 몇 년도 사진인지 어떤 행사 사진인지 구분하기 어려워 취재로 분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서경대신문의 종이신문은 2006년이나 2009년 등 과거에 발행된 종이신문이 주를 이뤘다. 외에도 △극제 △대학보사자료 △대동제 홍보물 △새내기 새로 배움터 자료 △정기 방송제 홍보물 △학생회 자료집 △학생제 홍보물 등 우리대학에서 진행된 다양한 활동의 자료 또한 전시됐다.

방문자 중 일부는 방명록을 작성하고 간단한 메모지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적어 원하는 사진 옆에 붙이는 참여형 전시를 경험했다. 학과,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은 방문자들에게 대해 심화평(아텍 25) 기자는 "흥미롭게 관람하신 것 같아 준비한 보람이 있었고 관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를 총괄한 김나연(아동 22) 편집장을 아래와 같이 만났다. Q. 보도사진전의 기획 의도는 무엇이었나? A. 신문사 창고를 정리하던 중 선배 기자님들이 촬영한 과거 현장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들이 매료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여다본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의 보도사진전은 주로 그해의 사진들만 전시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대학의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관통하는 사진들을 전시하면 차별화된 재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록물이 아니면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학교의 옛 모습들을 학우들과 공유하며 함께 추억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Q. 보도사진전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 A. 6년 만에 재개되는 큰 행사인

만 큼 준비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행사 직접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준비 현장을 함께 지키지 못한 점입니다. 모든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전달 받아야 했고, 세 손으로 직접 마무리하고 싶었던 부분들까지 동료 기자들에게 맡겨야 했던 점이 무척 미안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았던 만큼 직접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료 기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준 덕분에 신문사 자체 대형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해 준 기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Q. 향후 계획과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이번 전시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 신문사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이어질 바랍니다. 서경대신문은 앞으로도 교내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어 언론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나쁜 말' 에 맞서다... 풀잎봉사단 기획봉사팀, 자원봉사자의 날 수상

지난 12월 5일, 성북미디어문화마루 꿈빛극장에서 '2025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본 행사에는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 기획봉사팀 소속 5명이 수상자로 참여했다. 기획봉사팀은 올해 'SNS 속 나쁜 말, 내 마음도 다쳐요'를 주제로 언어 순화와 인터넷 혐오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도서를 제작한 바 있다. 기념식은 15시부터 진행됐다. 첫 순서로 '좋은친구들' 팀의 타악기 축하공연이 펼쳐졌으며, 이후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 구청장 및 주요 내빈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팀장이 2025년 성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구청장과 이사장이 자원봉사자 인증패와 표창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나연(글비 23) 학우, 손서연(미용1 25) 학우, 장윤하(미용2 25) 학우는 구청장 유공자 표창을 받았으며, 윤다인(경영 22) 학우와 이정민(비디 23) 학우는 성북복지재단 이사장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이어 팜 클래식 가수 진정훈의 축하공연이 진행된 후 기념식은 폐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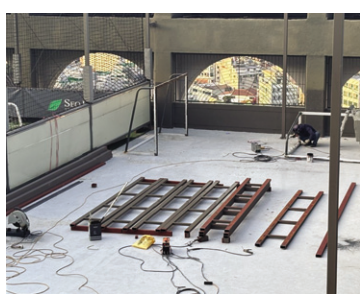
[성북구청장 인터뷰]

Q. 성북구 대학교 기획봉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A. 청년이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현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 참여 방식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을 시작·지속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 대학생들의 기획봉사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A. 본 사업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성북구 내 5개 대학 8개 동아리 소속 67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습니다. 기본 교육부터 전문 컨설팅, 활동 수행 및 공유회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완수했습니다. 특히 서경대 풀잎봉사단의 청소년 미디어 사용 절제와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목표로 한 언어 순화 부스 활동 및 동화책 제작, 환경 실천, 역사 스토리텔

링, 어르신 대상 생생형 AI 교육 등 청년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그 결과 청년의 기획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내 세대 간 공감 확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Q. 대학생 봉사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A. 성북구는 서경대학교를 비롯해 8개 대학이 위치한 대표적인 청년의 도시입니다. 청년은 곧 도시의 미래이며, 성북구는 경제·문화·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지역 발전과 연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봉사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입니다. 대학생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로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이 실제로 안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탐색하게 됩니다. 청년의 참신함과 독창적인 시각이 봉사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전 과정에서 책임감 있는 소통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교내 풋살장 1곳 추가, 인조 잔디 풋살구장 신설



우리대학 수인관 뒤편 풋살파크에 신규 구장이 조성됐다. 학교 측은 2학기 공사를 통해 신규 풋살장 조성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확충은 기존 풋살파크의 높은 이용률로 인해 제기됐던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조성된 풋살장은 17mx8.8m 크기로, 소규모 경기에 최적화된 규격으로 제작됐다. 이용 예약 방식은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다. 배이커 예약 시스템을 비롯한 전화 문의, 풋살 전문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학생 A(20) 씨는 "새 구장이 생겨 접근성도 좋아진 만큼, 다음 학기에는 동계들과 자주 이용해 볼 의향이 생겼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사 령

1월 16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편 집 장 김나연 (아동 22)
- ▶ 면 사회부장 김나연 (글비 23)
- ▶ 면 수습기자 송재이 (미용1 25)
- ▶ 면 수습기자 오연우 (미용2 25)
- ▶ 임 편 집 장 심화평 (아텍 25)
- ▶ 임 보도부장 김나연 (아동 22)
- ▶ 임 정 기 자 김경민 (글비 23)
- ▶ 임 정 기 자 유승윤 (미용1 25)



2026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세히 보는 이슈

지속되는 중·일 갈등, 한국에 호재인가 악재인가



▲ 출처: 로이터

지난 11월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이하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에서 중국이 대만 해상을 봉쇄 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무력을 동반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며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역대 일본 현직 총리 중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직접 언급한 것은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이다.

이에 중국은 대만을 중국 영토에서 분열시키려는 망상과 대만해협

무력 개입을 고취하는, 잘못되고 위험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정치적 약속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으로, 그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합리적인 외교보다 우의 이념을 우선시키고 교류의 전통보다 대립을 허용하는 일본의 태도"라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통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영화·공연에 대한 한일 령 △판다 외교 종료 △항공모함들

동원한 전투기 훈련 △일본 전투기 레이더 조사 등의 경제·군사적인 압력 조치를 가하며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 중이다.

하지만 일본 내 우의 세력의 지지를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 철회가 정치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요구인 만큼 응하지 않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기존 견해를 변경한 것은 아니다"라 전하며 중국을 도발할 의사가 없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지난달 8일, 일본은 자민당

회의에서 미국도 공통의 인식에서 중국 측에 외교상 강한 메시지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대만 관련 발언의 성향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식의 조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의 미국산 대수 수입 재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연기 등의 이익을 쟁기 만큼 당분간 중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하기 위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에서 '투 트랙' 노선을 보이는 한국도 편한 입장은 아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불이라는 말이 있다며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가능한 영역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작은 움직임 하나가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정치외교학과 과에 재학 중인 A씨는 중·일 갈등 상황에 대해 "발언 철회 여부에 대해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갈등의 장기화를 우려했다. 이어 "한국이 현명한 외교정책을 펼친다면 반사이익을 취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로켓 성장 쿠팡, 1조 원대 과징금에 성장 엔진 꺼지나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의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인구의 60%를 넘는 3,370만 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쿠팡의 기업 가치와 글로벌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조사 결과, 2024년 말 퇴사한 40대 중국인 전직 직원이 주범으로 특정됐다. 해당 직원은 'JWT(JSON Web Token) 서명키'를 무단 유지하며 5개월간 서버에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이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쿠팡 서버에 접속해 3,000만 개 이상의 계정 정보에 접근했다. 이는 퇴사자 권한 회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영 관리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다. 시장은 쿠팡이 그간 외형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리스크 관리에는 소홀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이 직면한 경제적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경제계 역시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에 주목하고 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보호 조치 위반 시 유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4년 쿠팡의 연간 매출액 약 41조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조 2,3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쿠팡이 수년간의 적자 끝에 확보한 연간 영업이익을 단번에 넘어서는 수치다. 이와 별개로 소비자들의 단체 손해배상 소송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수천 명의 이용자가 1인당 2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추가안내 및 구매이용권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12/29)
(클릭하시면 자세한 안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12/25에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한 추가 안내 내용입니다)

쿠팡은 유출자를 특정하였고, 고객 정보 유출에 사용된 모든 장치가 회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유출자는 약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조사에 의하면,

- 유출자: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 했지만 약 3000개 계정만 저장하였고, 이 역시 모두 삭제하였음
- 저장한 고객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 포함. 다만, 결제정보·로그인·개인통관고유번호는 없음
- 외부 전송 등 추가 유출 없음

▲ 출처: 쿠팡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쿠팡의 '자체 수사 및 증거물 직접 회수' 논란도 불거졌다. 쿠팡은 지난 12월 25일, 자체 조사를 통해 유출 범인을 특정하고 자백을 받아냈으며, 범인이 하천에 버린 노트북 등 핵심 증거물을 직접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쿠팡 측과 사전 협의나 공조가 전혀 없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쿠팡이 경찰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증거 오염 및 사법 방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멤버십 가격 인상에도 견고했던 이용자층은 보안 이슈에 흔들리고

있다. 특히 유출된 정보에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됐다는 점은 오프라인 안전과 직결돼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네이버쇼핑,마켓컬리 등 경쟁 플랫폼이 이 틈을 타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구도가 재편될 것이다.

이번 유출 사고는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편리함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보여줬다. 쿠팡은 단순한 사고와 보상을 넘어, 무너진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직 문화 혁신과 보안 투자를 증명해 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됐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누리호 4차 발사 성공과 민간 우주 시대의 개막

지난 11월 27일 새벽 1시 13분,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지난 2022년 12월 1일, '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 한국형 우주 발사체(누리호) 체계 종합 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확정 지으며 시작됐다. 이미 제작된 1~3차 발사체를 제외한 4~5차 발사체 제작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했다.

발사체 제작 과정에서 항우연에 소속된 일부 전문가들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며 인재 확보 작업이 이어졌다. 정치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 핵심 전략

이 기업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는 등 우려곡절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와 민간은 협력 구조를 정비하며 발사체 개발을 이어갔고, 그 결과 민간 주도 발사 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졌다. 지난 11월 25일 누리호 4차 발사체의 1~3단부와 위성 탑재부 조립이 최종 완료되고, 25일 누리호 발사체를 발사대로 이송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발사체는 작은 충격에도 민감해 이동하는 것은 고난도의 과정이다.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는 산악지형에 위치해 더더욱 까다로운 조건이었지만, 문제없이 순탄하게 이동했다.

최종적인 발사 과정을 앞두고 엄

밀리컬 압력 센서(로켓 발사대에서 발사체에 연료, 전력 등을 공급 및 압력 감지하는 센서) 오류로 18분간 지연됐지만,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는 지난 3차 발사에 비해 탑재체 무게가 2배로 늘어난 1톤에 육박했다. 인공위성이 8기였던 지난 발사와 달리 12기에 인공위성이 탑재됐고, 누리호 4차 발사체에 탑재된 인공위성 통신에 성공한 것이다.

발사가 민간 주도로 진행된 것과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제작한 인공위성이 탑재됐다. 참여 기업과 대학은 △KAIST △서울대 △세종대 △스페이스링크 △우주로테크 △인하대 △퀴터니언 △코스모웍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컴인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며 해당 위성들은 부탑재 위성(초소형 큐브형 위성)으로, 지구 관측과 단백질 결정성장, 해양 쓰레기 관측 등 임무를 수행한다.

주탑재 위성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이하 차중 3호)' 로 앞으로 1년간 태양 궤도에서 지구를 15바퀴 돌며 임무를 수행한다. 지구 오로라와 대기 광 관측, 바이오 캐비닛 기술과 우주 자기장·플라즈마 측정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 발사 기능과 우주 과학 기술을 검증할 예정이다.

'차중 3호'에 탑재된 '로키츠'가 주목받고 있다. 로키츠는 오로라를 관측함으로써 지구 대기로 유입하는 에너지 정보 등 우주 환경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한다. 본연구를 주도한 이우경 박사는 로키츠를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영상 카메라로 우주에서 오로라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우주정 윤영민 정장은 누리호 4차 발사에 대해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발사로 정부 주도 발사에서 민간 주도 발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의미"라 말했다. 하지만 "누리호 성공률은 아직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2035년까지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개발해 발사 비용을 kg당 2,000달러(약 300만 원)대로 낮출 것"이라 말했다.참고: 머니투데이.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 출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인스타그램

K-팝은 가라, 이제는 'K-김치'의 시대

파리를 물들인 붉은 물결을 따라서



▲ 출처: 대성

지난 10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15구청 대광장에서 유럽 연합(EU) 최초로 '김치의 날' 선포식이 열렸다. 미국, 영국 등에 이어 유럽 연합 공공기관 차원에서의 첫 공식 제정으로, 유럽 내 김치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 15구청과 AMA협회(Association Mes Amis)가 주최하고 대상 및 파리 시와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2025 KOREAN EXPO - 김치의 날 제정 선포식'은 필립 구종(Philippe Goujon) 파리15구청장, 아네스 에브랭(Agnes Evren) 프랑스 상원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치의 날' 공식 제정을 선포했다.

현장에서는 현지인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김장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파리 시민들과 관광객이 참여해 직접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며 한국의 전통 김장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와 함께

K-pop 공연도 열렸다.

이번 제정은 대상, AMA협회, SF 글로벌라이즈 등 3개 기관이 프랑스 파리15구청 국제협력기관에 공동으로 제정안을 발의, 파리15구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승인하며 이뤄졌다.

본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불어 전공 마리즈 부르맹 교수는 프랑스가 유럽의 교차로서 다양한 지형과 기후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외부와 영향을 주고받아 전반적으로 타 문화에 매우 높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풍성한 식문화를 꽃피워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요리'는 레시피의 전수부터 조리법,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전통과 문화를 잇는 핵심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정성 들여 음식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며, 이러한 문화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또한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패스트푸드나 정크푸드에 대한 반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최근 불어온 한류 열풍 속에서 프랑스인들이 김치를 포함한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이제 파리 사람들이 한국 식단을 대표하는 건강식품인 김치를 직접 담그는 것을 즐기는 것도 크게 놀랄지 않다"며 "김치의 날'이 파리에 거주하는 프랑스인과 한국인이 만나 함께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더욱 좋다"고 전했다.

이처럼 김치의 날은 이미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다.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뉴욕, 워싱턴 D.C 등 미국 13개 주에서 제정됐으며, 브라질 상파울루, 아르헨티나, 영국 런던 킹스톤 등에서 김치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초로 김치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는 등 김치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출처: 대성.

매년 11월 22일로 제정된 김치의 날은 재료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 효능을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제정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김치의 문화적·영양학적·산업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Co:Re, 2026 학생회의 방향을 묻다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될 그대의 힘이 되도록

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제54대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가 지난 11월 17일(월)부터 11월 24일(일)까지 진행됐다. 기호 1번 'Co:Re'와 기호 2번 '여울'의 치열한 경쟁 끝에 'Co:Re'가 당선됐다.

개표 결과 유권자 4,735명 가운데 2,557명이 투표해 총 54.00%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호 1번 Co:Re의 투표율은 58.98%(1,508명)으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

았다.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44조에 따라 Co:Re의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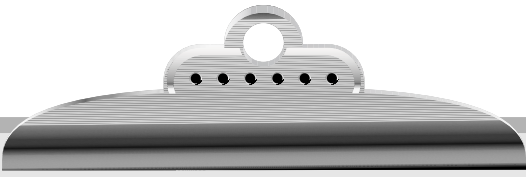
제54대 'Co:Re' 총학생회는 총학생회장 구진모(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와 부학생회장 김태휘(군사학과 23), 정책기획국장 심은교(아트앤테크놀로지학과 23), 사무국장 김서현(공공인재학부 공공인재전공 23), 복지국장 전은율(코스메틱&뷰티테라피학과

24), 운영집행국장 김동훈(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 미래교육국장 김승준(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1), 대외협력국장 윤정현(전자공학과 22), 홍보국장 박승아(디자인학부 생활문화디자인전공 21)로 구성된다.

Co:Re 총학생회는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될 그대의 힘이 되도록"이라는 슬로건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주요 공약으로는 카피킬러 도입, 신입생 관련 프

그램 강화, 교내 시설물 유지 보수 및 이용 편의 확대, 교내 소식 아카이브 운영 및 제휴 전용 소통 채널 확대, 시험 기간 저녁 식사 제공 프로그램, 축제 기획단 도입, 서경 Week, 교내 자치 기구 개편을 내세웠다.

2026년 우리대학을 이끌 Co:Re 총학생회를 직접 만나 공약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 소감 등을 들어 봤다.



Q. 회장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 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불어전공 23학번 구진모, 부학생회장 군사학과 23학번 김태휘입니다.

Q. 2026년 출범하는 총학생회 Co:Re 소개 부탁드립니다.

A.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될 그대의 힘이 되도록' 안녕하십니까, 서경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Co:Re입니다. Co:Re는 '함께'를 뜻하는 Co와 '다시'를 의미하는 Re를 결합한 이름입니다. 학우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걷고,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이 되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에서 끌기보다 곁에서 함께하며, 학우들의 일상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든든한 기둥이 되는 학생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Q. 8년 만에 경선으로 당선됐는데, 간단하게 소감을 말하자면?

A(구진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저희 둘 다 매일 같이 걱정과 긴장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만큼, 당선이 확정된 순간에는 안도감과 함께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8년 만에 경선으로 치러진 선거였다면, 당선은 기쁨보다 책임감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한 해의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맡겨 주신 기대에 끝까지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A(김태휘). 상대 후보도 저희도 너무 고생하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학생 자치를 대표하게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Co:Re 총학생회에 소중한 한 표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Q. 총학생회 정학생회장직과 부학생회장직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A(구진모). 지난 3년간 인문과학대 수습부원, 불어전공 정학생회장, 그리고 인문과학대 정학생회장을 맡으며 학생 자치 전반을 경험해 왔습니다. 각 역할을 수행하며 쌓아 온 실무 경험과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저를 총학생회장이라는 자리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자리에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하는 성격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학생 사회를 이해하는 시야와 실행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비교적 익숙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스스로에게 다소 나태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총학생회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다시 초심을 되찾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전체를 위한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총학생회장에 도전하게 된 중요한 계기입니다.

A(김태휘). 저는 '우연' 사회과학대 수습부원부터 '찬란' 사회과학대 대외협력국

장을 맡아 왔습니다. 사회과학대에서 학생회를 하며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학생회 경력과 즐거움을 학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출마에 대해 많은 걱정과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더 큰 학생회에서 학우분들을 위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학생회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Q. 임기 동안 최우선 목표는?

A. 임기 동안의 최우선 목표는 학우분들의 편의와 행복입니다. Co:Re 총학생회는 학우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우분들의 편의를 위해 공약 이행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약속한 공약을 실현해 나가며 앞장서겠습니다. 이후에는 Co:Re 총학생회가 불미스러운 일 없이 무탈하게 임기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전체 학생 MT나 신입생 OT 등 대규모 행사에 대해 계획은?

A. 신입생 OT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행사 이름을 '새내기세로배움터'로 변경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행사는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신입생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 대방면으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새내기세로배움터로 이름을 변경한 만큼 재밌고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Q. 재학생 사이에서 화두로 오른 카피킬러 관련 공약을 내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계획인가요?

A. 카피킬러 관련 공약은 학생처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건 카피킬러 필요 여부에 관한 수요도 조사를 먼저 진행 후, 관련 부처와 논의해 카피킬러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추후 진행될 수요도 조사에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축제 기획단 도입 공약을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건가요?

A. 구체적인 계획은 관계 부처와 더욱 논의를 해야 합니다. 3~4월 중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공약의 목표는 축제 이벤트 기획, 축제 컨셉 설정을 학우들의 손으로 직접 정하는 것입니다.

Q. 교내 자치 기구 개편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A. 2027년이 되면 기존 단과대(인문대, 사과대, 이공대) 학생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단과대 학생의 복지를 책임질 단체가 필요할 텐데 이에 관한 논의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애매한 권한으로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학생자치단체에 확실한 권한 부여를 통해 개편을 논의 중입니다.

Q. 공지와 정보가 흘러가는 창구를 어디로 정할 것이고, 어떻게 명확하게 할 예정인가요?

A. 우선 기본적인 공지 전달은 학우들이 가장 익숙한 카카오톡 공지방,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창구마다 전달하는 정보의 성격을 구분해 혼선을 줄이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추가하려고 준비 중인 창구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 공개 드라이브를 통해 교내 주요 정보를 아카이브 형식으로 정리해 학우분들이 번거롭게 학교 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제휴 전용 인스타그램 채널입니다. 기존 계정에서 제휴 정보가 다른 공지와 섞여 묻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휴 관련 내용을 모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Q. 미래융합학부 학생들의 소속감 문제 등 우려공약이 많은 상황이다. 공약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 신입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A. 현재로서는 신입생 대상 공약의 신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미래융합학부 학생들의 소속감 문제는 단기간에 프로그램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대학 총선에서 미래융합대학을 1과 2로 나눠 선출한 것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 변화의 시도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나로 묶여 있던 단과대를 분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학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를 바탕으로 미래융합대학1, 2 회장단과 총학생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입생들이 어떤 지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지부터 함께 파악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형식적인 행사보다 실제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향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고민하고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서경 Week(전체 학생 대상 학술제)에 관해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A. 아직 세부적인 기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단계는 아니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까지 설명해 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행사에 담고자 하는 방향과 취지는 분명합니다. 우선 동아리나 소모임과 같은 다양한 단체들이 공연이나 전시를 통해 자신의 활동과 실력을 자유롭게 보여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참여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활동을 포트폴리오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신입생들은 여러 학교와 전공이 가진 특성과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접하며 희망 전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대동제 이후 캠퍼스가 가장 활발한 시기를 활용해, 학우 여러분께 학업과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행사에 그치지보다, 참여하는 모두에게 의미와 즐거움이 남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 1년간 어떤 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은지?

A. 모두가 만족했던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큼니다. 다만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에 힘을 쓰는 학생회로 남고 싶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학우들이 한 해를 긍정적으로 기억해 주신다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포부 or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구진모). '함께 걷는 오늘이 다시 될 그대의 힘이 되도록'이라는 저희의 슬로건은 제가 총학생회장으로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이자, 앞으로 만들고 싶은 학생 사회의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 자치가 누군가를 앞에서 이끄는 일이 아니라, 학우들의 곁에서 함께 걷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속도와 상황이 다르지만, 혼자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오늘을 버텨낼 수 있고, 다시 도전할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고민을 함께하고, 작은 불편과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존재여야 합니다. 저희는 보여주지 못한 성과보다, 학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오늘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생 자치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학우 여러분의 오늘을 함께 걷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언젠가 다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A(김태휘). 저희 Co:Re 슬로건과 같이 학우분들과 함께 걸어 나가며 다시 나아갈 힘이 되도록 저희가 기둥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경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해 발이 되어 뛰고, 귀가 되어 들었습니다. 또 입이 되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큰 학생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 만큼 어려움도 함께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어려움 또한 극복해 나가며 열정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 믿고 뽑아 주신 만큼 보답할 수 있는 부회장이 되어 함께 걸어 나가겠습니다. 저희 Co:Re 총학생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5년 결산, 캠퍼스 '안' 과 세상 '밖' 을 꿰뚫은 두 개의 시선

바쁘게 달려온 2025년을 정리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2025년, 우리대학에는 미래융합대학 출범, 각골난방 보존 프로젝트, 대동제 등의 굵직한 이슈들이 있었다. 교내 제도 변화와 함께 캠퍼스 밖 또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리대학은 작년에 자유전공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입시 결과 변화와 학부 개편으로

이어지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을 위한 MD 카페 설립, FYP 포인트 제도 등의 새로운 제도 등도 생겨났다.

우리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한 것이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취임하며 정치 지형에 큰 전환점이 마련됐다. 더불어, 연예계와 스포츠계에서도 각종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을 넘어, 대학 운영 방식과 사회 전반의 가치관이 재정립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서경대신문은 매해 교내의 소식과 다양한 이슈를 꾸준히 다뤘었다. 올해 역시 여러 현안을 조명했고, 종강호인 이번 제596호를 통해 한 해의 주요 이슈를 종합해봤다.

이처럼 2025년은 불확실성과 재변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준과 방향성이 제시된 한 해였다. 교내와 교외를 가리지 않고 쏟아진 다양한 이슈들은 신문과 인터넷을 가득 채우며 쉽게 이어졌다. 이번 현장르포에서는 교내와 교외에서 벌어진 주요 장면들을 되짚으며 2025년의 기록을 돌아본다.



1월~6월

교내 기억에 남은 상반기, 빛속에서 완성된 대동제 'Blooming!'

지난 1~6월 교내 이슈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단연 대학 생활의 대표적인 행사인 대동제를 빼놓을 수 없다. 학업과 일상으로 바쁜 학기 중, 학우들이 함께 어울리며 캠퍼스를 공유하는 축제는 매년 큰 관심을 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도 다양한 교내 행사 중 대동제가 가장 많은 참여와 화제를 모으며 학우들의 기억에 남았다.

본교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대동제 'Blooming!'을 개최했다. 제53대 한빛 총학생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축제에는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주민도 참여했다. 더불어 학과·단과대·자치기구 부스 운영과 함께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이 진행됐다. 또한, 축제 안내를 위해 교내 연합 IT 동아리 '멋쟁이사사처럼'이 제작한 안내 사이트를 통해 공연 일정과 부스 정보가 제공됐다.

둘째 날에는 개막식 이후 교내 동아리 공연이 이어졌으며, BIG Naughty, 권은비, 카더가든이 무대에 올라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마지막 날인 9일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추가 안전 조치하에 행사가 진행됐다. 실용음악학과와 실용무용학과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YB밴드, ITZY, DJ 파스텔로 무대가 이어지며 3일간의 대동제가 마무리됐다.

정원준(글비 일여 24) 학우는 "저에게 올해 대동

제는 2025년에 있었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동기들과 선배들의 도움 덕분에 부스 운영과 준비 과정 전반을 즐겁고 보람차게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날에는 비가 많이 내려 부스 바닥에 차오르는 빗물을 계속 퍼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순간들 역시 즐거운 기억으로 남았다"며 "힘든 순간이 많았던 만큼 이번 대동제는 더욱 뜻 깊었고, 이러한 경험이 내년 일어전공 부학생회장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A 학우는 "축제 마지막 날에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비가 많이 내려 사람이 없을 것 같아



망설였다"며 "그럼에도 현장을 직접 보고 싶어 참여한데, 많은 사람이 우비를 입고 비를 개의치 않은 채 함께 뛰며 축제를 즐기고 있어 인상 깊었

다"고 전했다. 특히 "YB밴드가 준비한 서경대학교 밋발을 흔들며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순간은 청춘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며 "오허리 비가 내렸기에 그날의 축제가 더욱 특별하고 기억에 남았다"고 덧붙였다.

비로 인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진행된 올해 대동제는 그만큼 강한 인상을 남겼다. 날씨라는 변수 속에서도 축제를 즐기고자 한 학우들의 모습은 대동제가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내년 대동제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장면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모인다.

교외 잿더미가 남긴 청구서, 2025년 산불을 '정산' 하며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우리의 달력을 잠시 지난봄으로 되돌려보자. 유독 건조했던 대기,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던 연기 냄새, 그리고 뉴스 화면을 붉게 물들였던 화염. 2025년 대한민국을 뒤덮은 산불 사태는 연말이 된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 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2025년 최대의 재난 중 하나였던 산불이 무엇을 앗아갔고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5년 봄은 잔인했다. 지난 3월 중순, 경북의 성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불길은 건조한 대기와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됐다. 소방청 추산 피해 면적은 약 10만 4,788헥타르로, 서울시 면적의



▲ 출처 : 중앙일보
1.7배에 달하며 국내 산불 피해 규모 중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피해는 숲에만 그치지 않

았다. 32명의 생명이 희생됐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복구 비용과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공동체가 쌓아온 시간과 기억까지 한순간에 소실됐다.

진화를 위한 처절한 사투도 이어졌다. 전국에서 집결한 소방차 행렬과 헬기가 밤낮없이 물을 쏟아부었고, 민관군이 합심하여 방어선을 구축한 끝에 발생 149시간 만에 가까스로 주불을 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불길이 잡힌 자리에는 잿더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쳐왔던 구조적 문제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재난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지의 인터뷰에 응한 오성택(26)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가 꼽은 첫 번째 교훈은 '재난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다. 그는 산불의 원인을 자연재해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가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피해가 커진 배경에는 산림관리의 미흡, 대응 체계의 혼선,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불명확성 등 구조적 문제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재난을 단순한 기후 위기뿐만 아니라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두 번째 교훈은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다. 이번 산불은 장비나 인력의 수보다도 전문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통합된 지휘 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다.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준비가 아니라 형식이 불과하다. 재난 대응은 책상 위의 계획이 아닌, 반복 훈련을 통해

검증된 살아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난이 드러낸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했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회복의 과정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다. 고령자와 농촌 주민, 취약 계층은 더 큰 피해를 입고 더 오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재난 대응과 복구 정책이 가장 취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025년 산불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바꿀 수 있었던 사회적 재난'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불길이 사라진 뒤에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책임만큼은 남아야 한다. 기억은 애도에 머물 때가 아니라,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번 산불이 우리 사회를 성찰로 이끈 전환점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교내 '벌써 일 년' 2025 출범한 무전공 제도는 어땠는가?

7월부터 12월까지 교내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2025학년도에 처음 시행된 무전공 제도의 첫 한 해가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2025년은 미래융합대학이 처음으로 출범했다. 무전공 학생들은 1년간 전공 탐색 과정을 거친 뒤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무전공 학생들은 희망 전공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전공으로 배정받는다. 전공 배정은 FYP 포인트 70%, 교내 모의 토의 20%, 필수 교양 이수 10%를 합산해 산출한 점수로 이뤄진다. 12월 종강과 함께 포인트 산정이 마무리됐다. 이제 무전공 학생들은 전공 선택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미래융합대학 무전공 학생들의 1학년 생활은 어땠는지 직접 들어봤다.

[재학생인터뷰] - 오연백 학우(미용1 25)

Q. 무전공 학생으로 1년은 어땠는가?
A. 무전공으로 보면 1년은 교양 수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를 접하며 진로를 탐색한 시간이었다. 전공 선택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던 한 해였다. 우리 대학은 뷰티와 미용 분야가 강세인 대학이다. 해당 전공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강의를 들으며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

Q. FYP 포인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A. 사실 입학 당시에는 정말 생소해서 당황했었다. 하지만 1년 동안 해당 제도를 직접 경험해보니

타 대학과 차별화된 제도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FYP 포인트와 모의 토의, 교양 점수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어 고등학교 4학년을 경험하는 듯해서 긴장감을 주는 제도인 것 같다.

Q. 26학년 후배가 생긴다. 무전공 학생들을 위한 꿀팁 있나?
A. FYP 포인트에는 필수 포인트와 선택 포인트가 있다. 필수 포인트는 반드시 채워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선택 포인트로 대체할 수 없다. 필수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활동에는 꼭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70점 만점의 FYP 포인트를 최대한 채우는 것을 권장한다.

무전공 학생들의 1년은 포인트를 채우는 과정에

서 교양 역량을 기른 것을 배운 1년이었다. 또한, 진로설계세미나와 전공탐색세미나 등의 과목을 필수로 이수하게 돼 있어 학생들이 더욱 진로를 폭넓게 설계하도록 도왔다.

다만 희망 전공에 인원 제한이 있어 원하는 전공으로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경우 차순위 전공으로 배정받는 리스크가 따른다. 복수전공이나 마이크로다그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025학년도 무전공 학생들은 FYP 포인트라는 다소 생소한 제도와 함께 '고등학교 4학년'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한 해를 보냈다. 처음 시행된 제도인 만큼 미숙한 점과 불만도 물론 존재했다. 내년 입학할 무전공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

순위	인원	전공명	비고
1위	25명(100%)	미용(100%)	1학기 성적 우수자
2위	20명(76.9%)	미용(100%)	2학기 성적 우수자
3위	15명(57.7%)	미용(100%)	3학기 성적 우수자
4위	10명(38.5%)	미용(100%)	4학기 성적 우수자
5위	5명(19.2%)	미용(100%)	5학기 성적 우수자
6위	3명(11.5%)	미용(100%)	6학기 성적 우수자
7위	2명(7.7%)	미용(100%)	7학기 성적 우수자
8위	1명(3.8%)	미용(100%)	8학기 성적 우수자
9위	0명(0%)	미용(100%)	9학기 성적 우수자
10위	0명(0%)	미용(100%)	10학기 성적 우수자
11위	0명(0%)	미용(100%)	11학기 성적 우수자
12위	0명(0%)	미용(100%)	12학기 성적 우수자
13위	0명(0%)	미용(100%)	13학기 성적 우수자
14위	0명(0%)	미용(100%)	14학기 성적 우수자
15위	0명(0%)	미용(100%)	15학기 성적 우수자
16위	0명(0%)	미용(100%)	16학기 성적 우수자
17위	0명(0%)	미용(100%)	17학기 성적 우수자
18위	0명(0%)	미용(100%)	18학기 성적 우수자
19위	0명(0%)	미용(100%)	19학기 성적 우수자
20위	0명(0%)	미용(100%)	20학기 성적 우수자

▲ 출처 : 서경대 공지사항

는 유지하고 개선점은 보완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다.

교외 AI는 청년에게 기회인가, 위기인가

인공지능(AI) 기술이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SF 영화 속 소재로만 여겨졌던 AI는 이제 청년들의 취업 준비와 실무 현장에 깊숙이 침투했다. 특히, 2025년 구글의 'Gemini 3'가 공개되고 국내 서비스인 '뤼튼(Witn)'이 분야별 전문 기능을 강화했다. 이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청년들의 생존과 직결된 변수로 부상했다.

최근 업데이트된 생성형 AI들은 사용자의 지시를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 자율적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Gemini 3는 이전 모델 대비 추론 능력을 향상했다. 새롭게 도입된 '딥 싱크(Deep Think)' 기능은 복잡한 논리 구조를 가진

문제를 스스로 분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반면 국내 대표 AI 플랫폼 뤼튼은 한국형 실무 맞춤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뤼튼은 발표 대본, 생활기록부, 코딩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전용 기능을 선보였다.

이렇게 AI가 비전공자들에게 새로운 전문성을 부여해 문과나 이과의 구분 없이 기술적 경계가 허물어지면, 복합적인 역량을 갖춘 융합형 인재로 거듭날 기회가 열린 것이다. 결국 AI는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의적 발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여준다. 또한 AI의 발전은 노동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불

러왔다. 과거 신입 사원들이 수행하던 기초적인 업무들이 AI로 대체되고 있다. 최근 기업들은 채용 과정에서 AI 활용을 제한하기보다 '얼마나 적절히 도구를 사용하는가'를 중요한 역량으로 평가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이제 청년들에게 AI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인터뷰에 응한 취업 준비생 강씨(25)는 "자소서 초안 집기나 기업 분석 레포트를 요약할 때 AI를 필수로 사용한다. 하지만 AI가 내 고민의 과정을 대신해 줄수록 진짜 나만의 생각이 사라지는 기분이다. 나중에 면접장에서 AI가 써준 글이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숙제 같다"고 답했다.

본 기자도 지난 학기 과제를 수행하며 단순한 검색 엔진 그 이상의 AI를 경험했다. 명령어만 입력하면,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을 관통하는 발표

목차를 단숨에 구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예의를 갖추기 까다로운 고민했던 교수님께 드리는 첫 메일 작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검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소하지만 막대한 지점들까지 AI는 세심한 조력자가 되어 줬다.

이처럼 AI가 개인의 일상적 고민과 학습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2025년 하반기, 우리가 반드시 이 변화에 주목해야 했던 이유다. 이제 AI는 거대 담론을 넘어, 누군가에게는 과제 막막함을 해소하는 톨로로, 또 누군가에게는 서툰 사회적 소통을 돕는 길잡이로 자리 잡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양식을 재편하고 있다.

다. 다가올 2026년을 맞이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가올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기술적 진보를 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캠퍼스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젊은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란다.

변화와 도전으로 가득했던 2025년도 어느덧 끝자락에 다다랐다. 올 한 해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의 폭발적인 진화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마주해 왔다. 우리신문이 취재한 각 분야의 현장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희망과 과제를 동시에 품고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뜨거운 여름이었을 2025년. 그러나 그 수많은 기록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며, 이는 다가올 서경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단단한 토대가 됐다. 비록 고단한 순간도 있었으나,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간 성취의 기록들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며, 이는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더욱 찬란

하게 빛날 2026년을 맞이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가올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기술적 진보를 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캠퍼스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젊은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란다.

한 해를 뒤로하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2026년을 맞이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가올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기술적 진보를 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캠퍼스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젊은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란다.

한 해를 뒤로하고, 더욱 찬란하게 빛날 2026년을 맞이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다가올 새해에는 대한민국이 기술적 진보를 넘어 성숙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모든 청년이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무엇보다 우리대학 구성원들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거나 그 흐름을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캠퍼스 곳곳에서 창의적 에너지와 젊은 패기를 마음껏 발산하기를 바란다.

기고칼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복규 (영예교수/국문학)

2025년이 저물어 간다. 우리 풍습 가운데 수세(守歲: 해지킴) 문화가 있다. 설날 그림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우는 세시풍속이다. 이날 밤 각 가정에서는 방·마루·부엌·장독대 등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놓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안 잤다. 자면 눈썹이 희어진다고 믿어, 어린이들은 옛날 이야기 책을 읽거나 옷불이 같은 놀이를 하면서 졸음을 쫓았다. 그래도 아이들은 결국 잠이 들게 마련, 그런 경우, 잠 잔 아이의 눈썹에 밀가루를 발라주고 눈썹이 새어졌다고 놀려 주었다. 고향이 사골이었던 내 기억 속에서 생생히 남아 있는 풍습이다. 새로 오는 시간을 신성하게 여겨 경건한 자세로 맞고 싶어 한 조상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날에 부엌귀신인 조왕이 하늘에 올라가서 천신에게 그 집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낱알이

일러바친다고 믿어, 부뚜막 솔 뒤에 불을 밝혔다. 그러면 조왕이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케데헌' 이 세계인을 감동시키는 시절이니, 이 문화도 한류 콘텐츠로 화했으면 좋겠다.

조왕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왜 우리 조상들은 두려워했을까? 1년간의 삶 가운데 부끄러운 게 있으면 하늘의 벌을 받을까봐 그런 것일 게다. 한 해를 반성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게 우리 '수세' 문화의 정신이라 하겠다.

2025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을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되돌아본다. 은퇴한 지 5년째인 내 경우는 어땠나?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무료하다는 사람들도 많으나 나는 아직 그렇지 않으니 다행이다. 명색이 명예교수이니 이쁨값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식하며 살아서 그런지, 흐트랄 일이 몇 가지 있다.

첫째, 1천여 지인들에게 매일 아침톡을 보내며 살았다. 내 일상을 핸드폰 한 화면 분량의 글로 압축해 발송하기를 12년째, 올해도 거르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매일 아침톡을 써서 보내려면 허투루 살 아서는 안 된다. 보고 듣는 것을 잘 관찰해야 하고, 절제하며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삶이 밀도가 높아지는 느낌이다. 사는 게 지루한 분이 있다면, 아침톡을 해 보시라. 일기 쓰는 습처럼, 나날의 삶이 한결 의미로워지리라 믿는다.

둘째, 작년에 내가 주도하여 시작한 '고전읽기모임'이 1주년을 맞았다. 15명의 책벌레가 내가 관리하는 정동의 문화센터에 모여 월 2회 토론하는 행복을 누렸다. 『헝겊의 밍에교수』,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의식하며 살아서 그런지, 흐트랄 일이 몇 가지 있다.』

고전을 깊이 있게 읽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내년에는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작 가운데 20편을 골라서 읽기로 했으니 벌써부터 설렌다.

셋째, 노동자복지재단에서 제공하는 AI입문강의를 두 학기에 걸쳐 수강했다. 인문학 전공이지만 강의 덕분에, 챗GPT는 물론 클로드, 제미니, 나노바나, 퍼플렉시티, 구버, 솔트룩스, 답시크, 퀴트 등등 다양한 AI의 특성을 알았다. 내 필요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선택해서 부릴 수 있게 되었으니 든든하다. 지금 집필 중인 『우리 옛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의 한 문원전의 초벌 해석을 제미니를 시켜 해결해 한결 편하다. 듣자니 2대 현대시 전공 아무개 교수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으로 보고서 낸 줄도 모르고, 학생들 실력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실금병글하다가, 성적 마감 후 학생이 알려줘서 기

겁했다니, AI 모르면 교수도 바보가 될 판이다.

넷째, 내 전공 지식을 활용해, 〈한국 옛이야기와 성경 이야기 비교〉 이런 강의를 일반인을 위해서 한 학기 동안 했고, 〈알기 쉬운 기독교 신학〉 강의를 1년간 수강하기도 했다. 어느 신문에 매월 한 차례 칼럼을 기고하는 보람도 누렸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는 않으나, 큰 허물은 짓지 않은 듯 다행이다. 우리집 조왕이 하늘에 올라간대도 그다지 무섭지 않으니, 제아에 굳이 불을 켜 두거나 칠아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강의·연구·행정을 맡은 우리 교직원들에게도 보람 많은 한 해였으리라 믿는다. 2025년 잘 보내시고,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 기자의 눈 | - [이등병의 편지 6]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행복에 닿을 것이다

초겨울의 산산하고 서늘한 공기가 코끝을 간지럽힌다. 시원하지만 동시에 병령한 느낌이, 선선한 가을의 공기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겨울의 도래다. 여느 때와 같이 겨울은,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덮석, 찾아왔다. 겨울이 왔다는 것은 한 해가 저물어 간다는 뜻이겠지. 올해의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밀려, 찾아왔다. 2025라는 숫자가 이제 막 익숙해지려는 참이었다.

새벽길에 저물며 일대를 주황빛의 석양으로 물들이는 저 태양처럼, 올해가 저물어 간다. 한 해를 반추해 보며 다사다난이란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폭풍 같았던 시

간을 돌이켜본다. 행복한 기억들도 분명하지만 잘못하고, 후회되고, 부끄러운 과오들이 뇌리를 스친다. 이런 기억들이 꼭 더 짙게 기억나는 법이다. 특히 올해는 군대에서 보냈던 기억들이 선명하다. 하지만 곧, 숨과 함께 피어오르는 저 입김처럼 나쁜 기억을 훌훌 날려 보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순간만큼은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수고했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여주고 싶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올 한 해를 살아가느라 수고했다. 올 한 해 버텨내느라 고생 많았다. 올해 유달리 무언가 하지 않았어도 수고했고,

유독 힘든 한 해였다면 마찬가지로 수고 많았다. 가끔 우리에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예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하지만 이 삭막한 세상 속에서 이런 말 한마디나 남겨주는 이 찾기가 쉽지 않으니, 이 글을 통해서라도 따스한 위로 한마디 보낸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저 존재해 주어서 고맙다.

힘든 순간들이 술한 시간을 보내며 한 가지 명심하게 된 것은, 결국 시간은 간다는 것이다. 1월, 철원의 훈련소 앞에서 그 커다란 실상을 보며 허탈함에 사로잡혔던 내가 12월

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말이 무언가 하지 않았어도 수고했고,

도 초침은 쉬지 않는다.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현재는 끊임없이 과거가 된다. 너무나 힘들었던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이 사실을 되뇌며 기운을 차리곤 했다. 내가 그렇듯, 연발의 고양병 본위기와 동행하여 저 고된 현재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이다. 막막한 현실과 더 막막한 미래 앞에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럴 때마다 시간이 간다는 사실을 주문 의무로 삼게 보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석양이 진 뒤엔 여명이 오며, 보름달이 지면 언젠가 다시 보름달이 뜨기 마련이다.

오늘 하루도 고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 비로소 고생 끝의 낙을 발견할 미래의 나를 떠올린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가 기 마련이고, 다시 한번 한 해의 끝자락에서 있는 당신을 발견할 것이다. 시간은 간다. 힘든 시간은 언젠가 간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내보자.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고, 결국 행복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그저 행복에 다가가는 과정이다. 언젠가 행복에 닿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전준혁 객원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새로운 시대의 문학: 비디오 게임에 대한 이야기

2025년 12월 11일 더 게임 어워드가 개최됐다. 전 세계 수많은 게이머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2025 더 게임 어워드 GOTY(Game Of The Year)는 클레르 옘스퀴르: 33원정대(이하 클레르 옘스퀴르)가 차지했다.

클레르 옘스퀴르는 벨 에포크 시대 프랑스에서 영항받아 디자인한 세계관으로 화려하면서도 정제된 느낌을 게임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반응형 전투 시스템을 도입해 피지컬적인 요소도 중요하게 고려한 모습을 보여줬다.

게임의 줄거리는 인류 최후의 도시 루미에르에서 시작된다. 인류는 어느 날 균열이라는 현상을 통해 전 세계가 서로 분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그 후 일 년에 한 번 엔드리스라는 이상 현상이 수치를 적으면 그 숫자 이상의 나이를 가진 사람은 꽃이 되 죽는다는 설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설정을 통해 게임의 초반 분위기는 찬란해 보이

는 일상과 그 이면의 공포가 어우러져 오묘한 느낌을 준다.

위 설정과 작중의 언급을 통해 인류의 발발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이야기의 몰입도를 더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생리적 조산으로 인해 성장을 위해선 타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숫자는 인류의 생각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하다고 느껴진다. 이 외에도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충격적인 진실 △좋은 사운드트랙 △세밀한 그래픽 △깊이 있는 캐릭터 성격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르 레이터스를 알아보자. 아르 레이터스는 더 파이널스라는 FPS 게임을 제작한 엠바르 스튜디오의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 게임이다. 익스트랙션 슈터는 말 그대로 세계관 내에서 물자를 파밍하고 탈출하는 것을 반복하며 다른 플레

이어나 NPC와 상호작용을 하는 게임이다.

아르 레이터스의 줄거리는 2180년 전 세계적인 환경 붕괴로 인해 인류는 공동체나 부족 단위로 흩어지고 이후 거대 로봇의 침공으로 살아남은 인류들이 지하로 피신해 살아가는 이야기다.

플레이어는 인류의 지하 임시 거주지 '스페란자'의 레이터로, 지상에서 올라가 자원을 가져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후 게임을 진행하면 지상에서 아르코라 불리는 로봇들을 잡고 다른 플레이어들과 협력하거나 경쟁하며 성장해 나가는 방식이다.

아르 레이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보이스 채팅 시스템이다. 이 게임은 팀이 허용돼 플레이어들이 상호 협력해 거대한 아르를 잡거나 서로 배신하는 등 무궁무진한 상황이 연출된다. 만약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사냥당해 기절한다면 모스 부호로

SOS 신호를 들려주며 신호탄이 하늘로 발사되는 세세한 연출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와 같은 게임들보다 LOL(League of Legends)이나 배틀그라운드, 발로란트 등 MOBA와 FPS 부류의 게임이 유행 중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인칭 FPS 게임류를 선호해 이번 기회를 통해 삼인칭인 아르 레이터스나 단체 중심의 클레르 옘스퀴르를 접하며 관심을 가지게 됐다.

마지막으로 비디오 게임 입문자나 즐길 거리를 찾는 이들을 위해 올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게임 한 가지를 소개하겠다. 바로 디스패치라는 인터랙티브 무비형 어드벤처, 전략 플레이션 게임이다. 플레이어의 선택이 허용돼 플레이어들이 상호 협력해 거대한 아르를 잡거나 서로 배신하는 등 무궁무진한 상황이 연출된다. 만약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사냥당해 기절한다면 모스 부호로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수습의 눈 |

침묵의 전쟁터, 글자가 지닌 집요한 힘

세상은 영상의 시대다. 숏폼 영상이 뇌를 자극하고 화려한 그래픽이 감각을 지배한다. 긴 글을 읽는 일은 점점 고역이 됐고, 텍스트는 영상의 보조 수단처럼 취급된다. 스크롤을 멈추지 않는 손가락 앞에서 문장은 쉽게 밀려난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때, 가장 오래 곁에 남아준 것은 언제나 문장이었다. 영상이 찰나의 쾌락이라면, 글자는 마음 깊숙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글자의 힘을 가장 실감한 순간은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볼 때다. 손에 들린 한 권의 책은 단정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글자가 부딪히고 지워지며 살아남은 흔적이 숨어 있다. 작가는 자신의 밑바닥을 긁어 문장을 만들고, 편집자는 붉은 펜으로 단어의 결을 다듬는다. 문장 하나에 담긴 의미와 호흡,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까지도 끊임없이 의심한다.

온전한 문장 하나를 살리기 위해 수백 개의 글자를 버리는 순간들, 교정 위와 정적은 고요가 아니라, 더 나은 의미를 향한 치열한 아우성이 다. 삭제된 문장을 역시 무의미한 실 패가 아니라, 살아남은 문장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희생이라 볼

수 있다. 비록 제작자의 시선으로 지켜본 과정이지만, 그 백패한 흔적 속에서 나는 글자가 가진 집요한 생명력을 보았다. 쉽게 쓰이고 쉽게 소비되는 문장들과는 다른,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글자의 의지였다.

흥미로운 점은 책이 완성된 이후에도 글자의 역할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또다시 '글을 알리기 위한 글'을 쓴다. 서점 매대의 짧은 카페, 독자의 시선을 붙잡기 위한 몇 줄의 문장을 위해 밤을 지새운다. 본문이 작가의 가장 내밀한 고백이라면, 홍보 문구는 그 고백을 세상 밖으로 조심스레 건네는

손짓이다. 글자가 글자를 낳고 다시 독자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런 순환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한다.

글은 그 무엇보다 정직하게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글자를 나열하는 행위는 곧 이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가장 투명하게 마주하는 고요한 시간이 된다. 그렇기에 이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끊임없이 되돌아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요즘 글자들은 지나치게 가벼워지고 날카로워졌다.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상처 입히는 문장

들을 마주할 때면, 글자가 지닌 무게를 또 한 번 체감하게 된다. 글자는 사람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쓰는 문장 하나 하나가 누군가의 세계에 어떤 흔적을 남길지를 떠올려야 한다. 사색이 희미해진 시대에도 여전히 글자는 여전히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 퇴임편집장의 변

29개의 신문

365개의 기사 파일과 원고지 기준 790장, 즉 15만 8천 자의 기록. 신문사 기자로서 참성한 70개의 교내의 행사까지. 숫자로 정의한 신문사에서의 3년입니다. 이곳에 쏟은 열정과 노력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었지만 기자로서 지나온 길의 흔적은 이렇게 숫자가 되어 남았습니다. 인터뷰를 위해 적은 글자까지 합하면 아마 두 배는 족히 넘겠지요.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니 지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멋지게 시작하고 싶었으나 달랑 3명으로 임기를 시작해야 했고, 함께 손발을 맞춰야 할 부편집장은 3명이나 바뀌었습니다. 3학년 때 편집장을 맡은 자의 속명인 걸까요. 타인의 결과물을 평가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정작 제 실력에 확신이 없다는 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피드백을 주면 내가 맞게 하는 건지 늘 고민했으니깐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아마 편집장을 맡은 뒤로 흘린 눈물이 지난 신문사 생활 전체를 통틀어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과 고민의 시간을 통해 또 한 번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했으리라 믿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늘 옆에서 함께해주며 나아갈 힘을 준 소중한 동기이자 사회부장인 김나연 기자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사람이 부족해 허덕일 때 객원으로 든든하게 지원해 준 김경민·전준혁 기자님, 부족한 편집장을 믿고 따라와 준 우리 유승윤·김서연·송재이·이요한·오연우 수습기자님, 부편집장을 맡아준 믿음직스러운 김호성 기자님과 든든한 차기 편집장 심화평 기자님, 그리고 선뜻 칼럼을 기고해 주신 독자 여러분까지. 모두가 없었다면 아마 저 혼자서는 절대 이번 일 년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도움 속에서 10개의 신문을 무사히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행운이었고, 다양한 동료들이 없었다면 결코 해내지 못했을 일입니다. 제게 주어진 10호의 지면이 넓디넓은 망망대해처럼 참 많고 벽차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아직 해보지 못한 시도들이 눈에 밝혀 오하려 적게만 느껴집니다.

서경대 유일무이한 언론 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번듯하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해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만족감보다 아쉬움이 앞서는 건 늘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글을 적으며 오랜만에 작년 이맘때쯤 적었던 신입편집장의 변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신입편집장으로서의 마음가짐을 써 내려간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게 믿기지 않네요. 신문사에 입사하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쓰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옛일이 됐습니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을 써 내려가겠다”던 당찬 포부와 좋은 신문사를 만들겠다는 제 다짐이 독자 여러분과 우리 기자들에게 온전히 닿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이라도 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본분은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호가 가장 만족스러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장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의 신문을 완성해 내는 것이 편집장의 숙명이기에, 아쉬운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이만 다 사다난했던 저의 임기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서경대신문을, 김나연 기자의 기사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 제69대 편집장, 김나연 기자였습니다.

김나연

* 신입편집장의 변

언젠가 이 글을 쓸 날을 상상했었는데, 막상 작성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2025년에 신입생으로 들어와 처음으로 이뤄낸 건 다름 아닌 이곳 신문에 수습기자로 들어온 것입니다. 입학식에서 신문사 점퍼를 입고 카메라로 취재하는 모습에 매료돼 이곳을 택했습니다. 수습기자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동아리 알뜰제, 각골낭만, 대중제, 체전, 그리고 보도사진전까지, 교내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며 신문사 구성원과 가까워지고 돈독해졌습니다. 특히 대중제 때 비가 엄청 많이 내리서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만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부스 운영하고 학우들을 프레임 안에 담는 등 재밌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 다양한 사건·사고들도 많았지만, 함께 이겨내고 좋은 결과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놓고 싶은 순간은 딱히 없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심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보니 어느새 신문사에 애정이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를 위해 모든 걸 쏟고 싶었습니다. 저는 신문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업무는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이제는 편집장으로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습기자로 한 해를 보내고 편집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 어색하고 부담도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신문사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고 저도 이곳에서 성장했기에, 제가 받은 만큼 돌려보내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한 제69대 김나연 편집장님, 김나연 사회부장님, 잠시나마 함께한 윤정현 선배님께 정말 많이 배웠고 의지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선택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발로 뛰었던 김호성 부편집장님, 유승윤 수습기자께도 감사하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함께해 너무 행복했습니다. 특히 저를 위해 함께 한 김호성 부편집장님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2학기부터 함께한 김서연, 송재이, 오연우, 이요한 수습기자님도 짝지만, 같이 활동하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대 편집장님을 보면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만큼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신문사를 위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가진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폭풍의 언덕 같은 이 길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많이 부족할 겁니다. 많이 실수할 겁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발로 뛰는 지성 언론, 서경대신문에서 제 모든 걸 쏟아져 독자들에게 좋은 신문사를 만들겠습니다.

서경대학교 신문사 제70대 편집장 심화평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심화평

오늘의 책

아침을 활용하는 미라클 루틴 -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 김유진



▲ 출처 : 예스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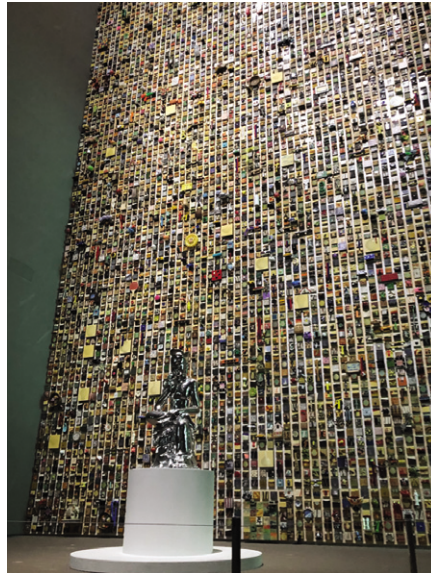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미국 2개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국제 변호사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유진 변호사의 책이다. 저자인 김유진 변호사는 책을 통해 하루 24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한다. 누구나 하루에 24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진다. 다수의 사람이 하루가 너무 짧다는 이유로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저녁 시간은 약속이나 피로 등 여러 이유로 계획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에 반해

새벽 시간은 오로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새벽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유진 변호사는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이 잠들어 있어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활용해 평소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의 경우, 20년 가까이 새벽 시간을 활용해 독서와 수영에 시간을 투자해왔다. 독서와 운동은 바쁘다는 핑계로 쉽게 미뤄지기 쉬운 활동이다. 하지만 그녀는 새벽에 독서를 할 후 수영장에 가서 운동하는 루틴을 통해 '삶의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저자는 새벽 시간에 하는 일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당부한다. 새벽 시간은 어디까지나 '자투리 시간'이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쉽게 지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책에서 "새벽은 내가 주도하는 시간이다. 그밖에 시간은 운명에 맡기는 시간이다"라는 구절이 특히 인상 깊었다. 새벽 시간에는 연락이나 방해가 거의 없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 반면 저녁 시간

에는 각종 연락과 유혹이 많은 시간이다. 그로 인해 하루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그녀는 새벽 시간에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평소 시도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이메일 확인이나 따뜻한 차 마시기 등의 소소한 활동도 충분히 좋다고 말한다. 실제 김 변호사는 평소 영상 편집을 배우고 싶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었다고 한다. 이에 새벽 시간을 활용해 영상 편집이나 글쓰기 같은 취미 생활도 틈틈이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MBTI 검사에서 J(계획형)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특히 추천할 만하다. 계획형 사람들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강점이 있다. 다만 계획이 본인 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어긋날 경우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초조해지기도 한다. 『나의 하루는 4시 30분에 시작된다』는 이러한 계획형 독자들에게 새벽 시간을 활용한 '미라클 루틴'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하루를 더욱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흐름을 따라서 -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우리나라 현대미술은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회 상황과 문화 변동으로 역동적으로 변화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러한 한국의 고유성과 역동성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상설전》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하고자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후, 현재까지 50년 이상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수집된 작품 중, 현대미술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져 온 대표작 90여 점을 선별해 한국현대미술의 흐름을 다층적으로 소개한다. 전시는 1·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기자

는 전시실에 입장해 '추상: 새로움과 전위'부터 관람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전후 1세대 추상화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여성 추상화가들의 주요 작품이 전시돼 있었다. 다음 구역은 '한국현대미술: 사물·시간·신체'로 이어진다. 이 구역은 60~70년대 냉전과 통제적인 정치 체제 속 현대미술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예술의 형식을 넘어서는 실험적인 작품이 주를 이루며, 자유에 대한 열망을 들이낸 작품들이 있었다. 그리고 '형상성과 현실주의'로 이어진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대중 매체의 확산 등 사회 변화를 담아낸 민중미술이 전시됐다. 전시는 "당시 사회 속 미술 인식은 변화했고, 인간 소외와 정체성을 탐구하는 실험주의와 여성주의의 미술의 흐름도 형성됐다" 설명한다. 2전시실로 넘어가면 '혼성의 공간: 다원화와 세계화'가 맞이한다. 90년대 냉전의 종식과 민주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백남준' 비디오 아트로 시작된 우리나라 미디어 아트 확산을 다룬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이 국내를 넘어, 국제 미술 현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시점을 보여준다. 이후 전시는 일상 속 사물 이용해 비평적

사고를 유도하는 '개념적 전환: 사물과 언어 사이'로 이어진다. 디지털 영상을 통해 실제 속 허구를 결합해 익숙한 현실을 예술적으로 풀어냈다. 이후 한국 사회를 성찰하는 '다큐멘터리·허구를 통한 현실 재인식' 순서로 마무리된다. 기자는 다섯 구역을 다니며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전시에서 인상 깊게 본 작품은 '개념적 전환: 사물과 언어 사이' 구역에 있던 강익준 작가의 <삼라만상>이다. 덩그러니 있는 반가사유상은 크롬을 덧입혀 존재감을 과시했다. 작품의 제목인 '삼라만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모든 것을 뜻한다. 조각상 뒤에 작은 캔버스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거대한 하나가 됐다. 그 위에 각종 물건을 올려 우주의 모든 것을 표현한 점이 기억 속에 강렬히 남았다. 그 어느 것보다 역동적인 우리나라의 현대미술 흐름을 《한국현대미술 하이라이트 상설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 05. 01.(목) ~ 2026. 05. 03.(일) (1월1일, 설날, 추석 휴관)
· 전시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 관람시간 : 10:00 ~ 18:00 (수, 토 10:00 ~ 21:00)
· 관람비용 : 2,000원 (만 24세 이하, 만 65세 이상 무료)

오늘의 장소

머무르는 순간이 콘텐츠가 된다 - 2025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리뷰



지난 2024년 크리스마스 마켓을 처음 방문했을 때, 예쁘긴 했지만 '사진 찍고 한 바퀴 돌면 끝'이라는 아쉬움이 컸다. 화려한 조명에 비해 머무를 공간은 부족했고, 단조로운 부스 구성 탓에 관람 동선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문 전에는 큰 기대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막을 내린 '2025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작년과는 완

전히 다른 행사라 느껴질 만큼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줬다. 입구에서 대형 트리와 하트 조명이 반짝이는 순간, 지난 시즌과의 차이가 확연했다. 정적인 클래식함이 주를 이뤘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움직이는 하트와 트리가 어우러진 '하트 라이트 쇼'가 역동적인 감성을 더했다. 특히 오후 5시 30분 첫 점심식 때 사람들의 탄성이 절로 나왔고,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핸드폰을 들어 올렸다. 트리 주변을 가득 채운 '스노우 샷리'는 이전엔 없던 새로운 볼거리였다. 도시 한복판에서 눈이 내리는 순간을 즐길 수 있었다. 이번 행사의 가장 큰 변화는 단연 2층 구조의 회전목마 도입이었다. 긴 대기 줄 탓에 포기해야 했던 작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탑승 가능 인원 덕분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 무엇보다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늘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다. 중앙의 '빅텐트 다이닝 홀'은 추위를 효과적

으로 막아줬고, 올해 처음 도입된 '프라이빗 라운지'는 도심 속 겨울 별장 같은 아늑함을 선사했다.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오롯이 트리 조명을 감상했던 순간은 꽤 긴 여운을 남겼다. 부스 역시 작년보다 약 20% 확대되며 볼거리가 더욱 풍부했다. 딜라이트 프로젝트 팝업, 초콜릿 하우스 등 소위 'MZ 취향'을 저격하는 콘텐츠가 많아 실제로 쇼핑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작년엔 "예뻐"는 한 줄 평으로 끝났다면, 올해는 "감는 시간 자체가 콘텐츠"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화려했던 조명은 1월 4일부터 꺼졌지만,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있다. '보는' 빛에서 '즐기는' 빛으로 진화하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을 선사한 이곳. 다가올 다음 겨울, 잡실은 또다시 설렘으로 가득 찰 것이다.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 주 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앞 월드파크 잔디광장
· 운영시간 : 2025. 11. 20.(목) ~ 2026. 01. 04.(일)
· 입장료 : 일반 입장권: 오후 4시 이전 무료, 이후 5000원/ 패스트패스(올데이 우선 입장권): 긴 대기 없이 빠른 입장 가능(혜택: 마켓 할인 쿠폰 5,000원 + 뽕소주 1잔 포함)

오늘의 영화

모습은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어! - 릴로&스티치 (2025)



▲ 출처 : 디즈니플러스

어느 날, 종잡을 수 없는 외계 생명체가 나타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당장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열고 용기를 내 친구가 될 것인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와 가장 소중한 단짝 친구이자 가족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 디즈니 애니메이션 <릴로&스티치>를 소개한다. <릴로&스티치>는 2002년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끌었던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실사화한 작품이다. 뛰어난 라이브 액션과 CG, 현실적인 캐릭터 묘사와 생생한 하와이 배경으로 "일작을 완벽하게 계승하는 바람직한 실사화"라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재미있는 유머와 따뜻한 감동을 통해 핵심 메시지인 '가족의 소중함'을 경쾌하게 표현하며 많은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점박이 박사의 손에서 탄생한 '626'은 남다른 두뇌와 파괴력으로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혀 폐기될 위기에 처한다. 626은 호수 도중 자신을 폐기하려는 은하연방의 눈을 피해 우주선을 탈취했고, 지구로 불시착하게 된다. 그렇게 하와이로 떨어진 626은 파란색의 독특한 개로 오해를 받아 동물 보호소로 보내졌고, 외로운 소녀 '릴로'를 만나게 된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후 언니 '나니'와 단둘이 살아오고 있는 릴로는 엉뚱한 모습과 천진난만한 행동으로 또래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정한 친구'를 만나고 싶은 릴로 앞에 강아지 행세를 하는 626이 나타났고, 금세 마음을 뺏기게 된다. 그렇게 626은 가장 귀여운 악동 '스티치'가 됐다. 우정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고자 하는 릴로와 스티치 앞에 험난한 여정이 펼쳐진다. 스티치는 626을 폐기하려는 은하연방의 끈질긴 추격을 받고, 릴로는 가정환경 문제를 이유로 나니와 헤어질 위기에 직면한다. 다사다난한 여정 속에서 스티치는 가족을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은하연방의 인정을 받아 지구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릴로는 이웃의 도움을 통해 나니, 스티치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며 진정한 '오하나(가족)'의 의미를 완성한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음악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출발하는 발걸음

한 해의 끝자락이 지나고, 새로운 시작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한 해의 아쉬움과 무게는 잠시 내려놓고, 다시금 자신을 믿으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간이다. 그 길이 때로는 버겁고 지칠지라도, 다시 일어설 힘을 채워줄 노래 세 곡을 준비했다.



▲ 출처 : 멜론



▲ 출처 : 멜론



▲ 출처 : 멜론

♪ <One and Only> - BOYNEXTDOOR
"모두와 같진 않지만
뭐든 될 수 있어
If you don't know
now you know
Listen, I'm the one and only"

♪ <Pose> - Red Velvet
"뻘한 틀에 갇혀 있지 마
허릴 활짝 펴고 일어나
I feel so high
가장 자유로운 이 순간
진짜 나를 만나 Yeah"

♪ <My My> - SEVENTEEN
"평행선을 넘어 꿈의 노를 저어보자
행복의 시간은 마음속 주머니에 가득 차
서두르지 마 늘 충분하니까"

우리 모두와 다르기에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지 않아도 나만의 속도로 힘차게 나아가면 된다. 나만이 가진 특별함을 천천히 들여다보자. 세상에 정답은 없다. 스스로를 믿을 때 비로소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향할 수 있다. 내가 가진 나만의 힘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세상의 수많은 기대와 기준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필요는 없다. 그럴 땐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주변의 시선과 정해진 틀에서 과감히 빠져나와 가장 자유로운 순간,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마주하게 된다. 다시 나아가는 발걸음 끝에서는 새로운 내가 시작될 것이다.

삶의 속도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조급함은 버리고 나만의 속도로 노를 저어보자. 서두르지 않아도 계절은 자기만의 속도로 흐른다.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 나만의 길로 향할 때, 그 길은 거친 파도 앞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활로가 될 것이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3명의 도전자와 1개의 왕관, 치열했던 2025 F1 드라이버 챔피언 결정전

2025년 포뮬러원(이하 F1)은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를 보냈다. 장장 23라운드가 여러 선수가 얽히다시피한 결과, 드라이버 챔피언의 자리에 가장 근접한 3명의 유력한 후보 선수가 추려졌다. 이들은 각각 레드불의 막스 페르스타펜,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와 랜도 노리스다. 먼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4년 연속 드라이버 챔피언을 달성한 F1의 살아있는 전설인 레드불의 막스 페르스타펜(이하 막스)의 일대기를 알아보자. 막스는 출생부터 남달랐다. 그의 아버지는 전직 F1 드라이버 요스 페르스타펜이고, 어머니는 전직 레이싱 드라이버 소피 캄펜이다. 이처럼 막스는 어린 나이부터 레이싱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자라났다. 막스는 네 살 때 처음으로 카트에 입문해 다양한 카트 챔피언십을 우승하며 레이싱에 대한 재능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후 막스는 2015년에 17세의 나이로 F1 그랑프리에 데뷔해 역대 최연소 드라이버 기록을 세웠다. 레드불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막스는 2021년에 드라이버 챔피언을 달성하는 영예를 맛봤다. 그 후로도 2024년까지 4회 연속으로 드라이버 챔피언의 자리에 오르며 메르세데스의 루이스 해밀턴의 시대를 끝내고 자신의 시대임을 세상에 공표했다. 다음은 최초의 21세기 출생 F1 드라이버인 맥라렌의 오스카 피아스트리(이하 오스카)의 일생을 살펴보자.

오스카는 10살에 카트에 처음 입문한 후 다양한 카트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후 여러 팀을 거치다 2022년 말핀의 테스트 드라이버 자리를 수락한 후 다시 맥라렌으로 이적해 2023년 정식으로 데뷔했다. 오스카는 데뷔 시즌에 바로 포디움에 입성하며 자신의 재능을 증명했고, 현재는 팀 동료 레이서인 랜도 노리스와 맥라렌의 부흥을 이끌어 가고 있다. 오스카는 레이싱 도중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도 목숨을 난사하거나 흥분하지 않는다. 더 붙여,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 F1의 새로운 아이스맨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맥라렌에서 통산 최다 출전과 최다 포인트를 획득한 랜도 노리스(이하 랜도)의 이야기를 알아보자. 랜도는 2017년부터 맥라렌과 주니어 드라이버로 계약해 2019년 정식 데뷔했다. 데뷔 첫 경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며 2020년에는 첫 포디움에 오르는 영광을 누렸다. 2024년 디펜딩 챔피언인 막스의 자리를 위협하는 적수로 성장했다. 시즌 초중반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막스와의 경쟁에서 밀려나며 어렵게 2위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각각의 이야기를 가진 이 3명의 선수는

하나의 공통된 꿈인 드라이버 챔피언을 차지하기 위해 2025 F1 월드챔피언십 24라운드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 결승에서 맞붙었다. 드라이버 챔피언의 자리는 이 3명에게 모두 열려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왕좌에 가장 가까웠던 랜도 노리스와 막스였다. 최종전인 아부다비 그랑프리에서 랜도는 드라이버 챔피언을 위한 순위인 3위 이내를 정확히 3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F1에서 자신의 첫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을 달성했다. 막스는 1위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도와 포인트 총합에서 2점 차로 밀려 어렵게 시즌을 마무리했다. 역사에 남을 2025시즌을 뒤로하고 F1은 새로운 팀과 선수들과 함께 2026시즌을 준비할 것이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출처 : GETTY IMAGES